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기도서 233면 (가해)

제 1 독서 : 집회3, 2-6, 12-14

제 2 독서 : 골로3, 12-21

복 음 : 마태2, 13-15, 19-23

# 숲 정 이

“요셉은 일어나 그 밖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  
고 에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마태 2, 14)

##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

세계 평화는 군비 경쟁과 지역 분쟁 그리고 제 민족과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불의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자연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결여, 자연 자원의 피폐, 점차 악화되는 생활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세계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야기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은 집단적인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계관은 계시로부터 나온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저는 성서의 창조 설화에 대한 반성으로써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와 똑같은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이야기 속에서 반성과 행동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발견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증하는 자연계의 황폐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를 지배하는 질서와 조화의 요구, 감추어져 있지만 감지할 수 있는 그 요구를 무감각하게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거지에서 자연의 황폐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생태계의 민감한 균형은 무절제한 동식물의 남획과 무분별한 자연 자원의 개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발전과 복지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손실을 미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곧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과학은 이미 적대 행위의 목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환경의 변경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히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입니다. 화학전, 세균전, 생물전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균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무기의 개발을 위한 실험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형태이든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환경의 회복에 기여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남녀들은, 그래서 세계 안에는 명확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며, 저는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에, 저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자연 환경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의 천상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사도적 서한 Inter Sanctos, AAS 71(1979), 1509면 이하 참조).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참으로 깊이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 동물들과 식물들, 온갖 자연들, 형제 자매인 해와 달까지 - 초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찬미하셨습니다. 아씨시의 그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를 이룰 때에 모든 민족들간의 평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모든 피조물과의 저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더욱 훌륭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 주고계십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영감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저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더 더욱 생생한 “형제애”의 의식을 지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께서 인류 가족 안에 존재하는 저 위대하고도 숭고한 형제애에 비추어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할 우리의 중대한 의무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1989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숲 정 이 산책



◀ 새 해 인사 ▶

# 축복하여 주소서

김 환 철 신부 / 교구장 직무대행

199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빕니다.

지난 한해동안 교구장 주교님의 공식중임에도 서로 도우며 부족한 일에도 탓하지 않는 인내로써 큰 어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더욱 은혜로운 해였습니다.

세계성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성대히 열리게 되었음은 더없는 영광이요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차원에서 주최한 어린이 성체대회와 청소년 성체대회, 세계 성체대회 문화행사로 초청했던 켈 베르테 전주공연은 신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계 차원에서 민주화 물결의 파고가 제일 심했다고 생각되면서 그 중에서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로바초프가 교황님을 찾아가 자기나라에 돌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겠다는 약속은 70년간 무신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가 종식되지 않나 하는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남북통일 문제와 공안 정국으로 물고가려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놓고 우리 교구 사제단은 한마음으로 결집되어 전국에서 모인 정의구현 사제단과 함께 성대히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예언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뿌듯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토록 365일 짧은 한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교구 전 신자들의 숙원인 5인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5인순교자 시복시성 준비에 아무런 장애됨이 없음을 알려준 교황청 답변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면서 결의되었던 50주년 기념 사업중 제일 중점 사업인 치명자산 개발을 완성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없는 영광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새로 모시는 교구장님과 함께 우리 교구 안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드립니다.

## 평화의 날



평화의 이념과 평화적인 해결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1967년 12월 8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축일을 맞아 교황 바오로(Paulus) 6세는 메시지를 통해 1968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메시지에서 교황은 평화란 생명과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이 지닌 가장 높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계 가톨릭 신자와 선의(善意)의 모든 이들이 동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교황의 메시지는 각 국가와 국제기구, 종파가 다른 수많은 교회 등 세계 도처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로테스탄트인 '세계교회회의'(W.C.C.)도 교황의 호소에 동조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각 회원 교회로 보내기도 하였다. 매년 '평화의 날'에는 특별한 주제와 함께 교황의 메시지가 발표된다. 한국 교회는 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통상적으로 1월의 첫 주일에 기념미사를 명동 대성당에서 전국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하여 교황의 메시지를 대독한다.

※ 평화의 날인 1월 1일에 신자들은 주일과 동일하게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연지·곶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어  
비디오·아이스빙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 (가터리니)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 이태리 천연대리석 성물판매 성마리아성물센터

채 수 현 (시몬)  
가톨릭센터 1층  
☎ 87-6708

### 패션핸드백의 명품 美\*보 미성핸드백

취급품목: 남녀핸드백, 지갑007  
서류가방및여행구입제  
하 명희 (미카엘)  
김 혜경 (글라라)  
신수 코이백회점 1층  
☎ 80-1140

### 금·은·보석·시계 (에를상당) 가 보 당

최 유호 (시무엘)  
김 정자 (모니카)  
중앙성당↔전주시청 중간지점  
(임신평정형외과 옆)  
☎ 84-2243

잡 관 /

한해를 마무리 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1989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 아래 수만 순교자의 넋이 서린 이땅 위에서 270만 한국 가톨릭인의 감격과 흥분 속에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잘 치루어낸 잊지 못할 영원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각 계층과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의 아픔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자가 되어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황폐 되고 고갈되어 버린 딱 어려운 때임을 우리 모두 깊이 자각하면서 생활해야 할 때입니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잠시 휴가차 귀국하신 어떤 신부님은 한국의 물결낭비와 사치를 보시는 순간 마치 고무풍선을 연상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천주교 신자도 근래 10년사이 신자수가 2배로 불어 났다 합니다. 딱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여도 내면적으로는 일체감과 화해와 나눔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동체도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참 평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80년대를 아쉬움 속에 보내고 다가올 90년대를 맞으면서 보다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황 의 옥(파로) / 중앙성당 사목회장

교 구 소 식

1. 교구장 공석으로 90년 신년교례는 없습니다.
2. 천호피정의 집 이용안내 : 금번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천호 피정의 집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사용가능인원 : 40~100명(40명이하는 운영상 사양합니다) \* 사용료 : 1일피정-1인당 4,500원(중식포함) 1박3식-1인당 12,000원(동절기 난방비별도 1일-300원 1박2일-1,000원) 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골본당 및 공소신자 단체와 학생은 특별할인하여 드립니다.  
\*문의전화 : (0652) 73-6547, 6600 \*시행일시 : 1990년 1월 1일부터
3. 평신도 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 일시-1990년 1월 6일(토)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참석대상-각본당 사목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1990년 1월 4일(목) 덕진천주교회 10시-4시 미사도구, 목주, 도시락 지참
5. 어린이 복사단 교육 : 일시-①남전주, 김제, 삼례지구-1990. 1. 8(월) 오전9:30 ②북전주, 정읍, 이리지구-1990. 1. 9(화) 오전9:30 ③군옥, 익산, 임순남, 무진장지구-1990. 1. 10(수) 오전9:30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초등부 복사단 참가비-1인당 2,000원
6. 전주 제4차 선택 : 일시-1990. 2. 9~11 장소-천호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접수-교구청 교육국
7. 중·고 전례부원 연수 : ①남전주, 이리, 익산, 삼례, 무진장지구-1990. 1. 7(일) 오전9:00 ②북전주, 군산, 김제, 임순남, 정읍지구-1990. 1. 14(일) 오전9:00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본당 전례부원(해설자, 복사단) 참가비-공문참조
8. 중·고 임원연수 : 일시-1990. 1. 20~22 장소-무주자연학습원 대상-각 본당 임원단

요십이 (856) 김병오



출산용품·유아복·아동복

리오부라보

윤은순 (클로리아)  
이리시 중앙동 사랑방 입구  
☎ 3-3022

유산군이 살아있는 고급우유

파스퇴르우유

박성자 (루시아)  
파스퇴르우유  
김제부안대리점

☎ (0658) 45-0794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옆  
☎ 82-6492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앞  
☎ 86-2715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 84-2628

성원 인테리어 전복영업소

- 생활공간의 멋-최신형 조립식 선반
- 녹색바람-이온식 공기청정기
- 사원보급-영업관리 ○명, 운전기사 ○명

서원식 (야고보) ☎ 78-1941

모래내 전복은행 이후동 지점앞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 석  
수녀원 82-9662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축" 합동혼인성사로 성가정 이룩하시기 기원합니다.
  2. 새해 첫미사: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의무미사-1월1일 5시30분, 9시, 10시30분, 3시, 7시30분, 공소4시30분, 봉헌준비
  3. 송년미사: 오늘밤10시 각 단체의 청년들은 모두함께 하십시오.....
  4. ME성가정 피정: 1월1일~2일 광주명상의 길
  5. 사목회 위원 및 구역반회장 피정: 13일 3시~14일 5시 천호피정의 집
  6. 모임: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2일 어머니 미사후, 성시간-4일 7시30분 반회장 모임-5일 10시30분 사목회 분과위원회 모임-5일 8시 울드레아-7일 공식미사후
  7. 남성꾸르실로 제34차: 4일~7일 강문수, 박문희, 오정엽
  8. 어린이 첫영성체: 입학식 9일 11시 어머니등반, 대상3학년 이상  
 지난주봉헌금: 604,019원  교무금: 670,000원  
 성탄미사: 1,429,25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회장단회: 오늘 송년미사후
  2. 송년미사: 오늘 저녁10시 7:30미사 없음
  3. 축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1일 미사시간 오전9시, 10:30 저녁7:30
  4. 밀알회: 3일 오후6:30
  5. 제대회: 4일 오후10시30분
  6.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5일 오전11시
  7. 성체감복: 6일 저녁미사후
  8. 사목회: 7일 저녁미사후
  9. 울드레아: 7일 공식미사후
  10. 대간회: 7일 공식미사후
- 금주전례: 해설-최경순 독서①오장수 ②정강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최창기 ②이강남 봉헌-최창기씨 부부  
 지난주봉헌금: 583,020원  교무금: 402,510원  
 성탄미사봉헌금: 869,441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 오늘은 성기정 축일: 90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반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1. 평화의 날(천주의 모친 대축일): 의무축일입니다. 미사시간-10시30분
2. 신구일 사목회 임원 단합대회: 1월1일 공식미사후
3.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사목회: 6일(토) 저녁미사후 결산총회
5.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째주(다음주) 매월 교무금 분납하여 본당재정에 힘씁시다.
6. 성경읽기: 창35장~끝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명웅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예수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대축일!

1. 회의: ①사목회-1월3일(수) 저녁미사후 ②자모회-1월3일(수) 오전10시30분 ③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④프란치스코회-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①울드레아-1월4일(목) 후8시 ②전례부-다음주일 저녁미사후
  3. 발립: 1월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10시30분
  4. 감사: ①금년성탄절을 즐겁고 아름답게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②불우교우들을 위하여 헌금을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봉헌금: 436,280원  교무금: 1,542,000원

##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1월1일 오전10시미사
2. 1월2일에서 5일까지 미사없음
3. 청년회 가입 신청 바랍니다.
4. 청소년사: 1월1일~6일까지 서완산동1가 서편, 동편  
 지난주봉헌금: 889,430원  2차헌금: 2,020,000원

## 추의및 흑포제작 판매 합니다.

연락처: (용머리성당 87-0441)

## \*전동

사제관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선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 헌금바람. - 예수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1.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송년미사: 오늘 저녁7시미사
  3.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이 1월1일(월)입니다.  
\*진신자 미사 참석의무가 있는 대축일입니다. 새벽5시30분, 10시30분 7시미사
  4. 병자방문: 1월5일(금)
  5. 구역봉사자모임: 다음주 저녁7시
  6. 반기도회: 1월9일~12일 각구역 반별로 실시바람
  7. 성화회 임원개편: 회장-이종두(헨리꼬) 총무-양현홍(이레네오)  
 금주보수비헌금액: 9,565,719원  현재모금총액: 100,812,736원  
 금주보수비헌금액: 150,000원  현재신입총액: 203,121,299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송년미사: 오늘 저녁미사에(오후7시)
2. 자모회: 2일(화) 오전10시30분
3. 성심회: 3일(수) 오후2시
4. 사목회: 6일(토) 오후8시(사제관)
5. 구역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평화의 날 미사안내: 1일(월)-주일과 같습니다.
7. 성탄절 행사에 수고해 주신분께 감사드리며, 신자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8. 금주전례: 해설-문치구 복사-김나섭 김광탁 봉헌-한형수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연희 복사-김홍기 유공수 봉헌-이진국 부부  
 지난주봉헌금: 386,640원  교무금: 1,720,500원  
 성탄절봉헌금: 669,550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증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축!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오늘)!
2. 축!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 신정) 1.1(월) 대축일 신년미사-10:30 \*월요일(1.1)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3. 국교생 예비자 및 첫 영성체자 집중교리: 매일 오후2시 영성식-1.13(토) 오후2시 첫교백 1.13(토) 오전10시 첫영성체식 1.13(토) 오후3시 미사중
4. 새 예비자 교리시간: ①일09:30(교육관) ②수요일 오후7시 미사후(교육관) ③금요일 10시 미사후(교육관)
5. 모임: ①까리마스 금(5) 오후2시 ②안나회 일(7) 11시 미사후 ③구역봉사자 모임 1.10(수) 11시 6. 청소년상담: 쌍용아파트 7. 사목회 임원 새선출(게시판 참조) 앞으로 2년동안 수고하세요.  
 지난주봉헌금: 746,980원  교무금: 1,682,000원  
 성탄성아미사헌금: 1,072,740원  성탄년미사 대축일헌금: 628,650원 89년도 교무금을 속히 환납요. 90년도 교무금 신입바람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 ※ 사목회장 김홍두 시몬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김용무 사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요셉회: 공식미사후
  3. 1월1일은 성모마리아 대축일과 평화의 날입니다.
  4. 여성분과회: 5일(금) 어머니미사후
  5. 안심 공식미사: 5일(금) 오후7:30  
차주모임: 사목회  
금주전례: 해설-김용무 독서①김무길 ②송영이 기도-김자옥 홍홍순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정상수 ②조숙례 기도-이중권 배숙명  
 지난주봉헌금: 664,430원  교무금: 4,761,000원  
 성탄대축일봉헌금: 775,260원  구유헌금: 546,650원